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4 주차 (7:45-8:11)

(2015년 4월 26일 - 2015년 5월 2일)

(제3권 14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4 월 26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이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 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 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 사람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입)

오늘의 본문 (요 7:45~52)

45.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원문해석하기

- (45절) 그런데 종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ἦλθον οὖν οἱ ὑπηρέται πρὸς τοὺς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Φαρισαίους)
그리고 그들이 그들[종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ον αὐτοῖς ἐκεῖνοι)
왜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διὰ τί οὐκ ἤγάγετε αὐτόν;)
- (46절) 그 종들이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ὑπηρέται)
지금까지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οὐδέποτε ἐλάλησεν οὕτως ἄνθρωπος)
- (47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ὖν αὐτοῖς οἱ Φαρισαῖοι)
너희들도 역시 미혹된 것 아니냐? (μὴ καὶ ὑμεῖς πεπλάνησθε;)
- (48절)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그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μὴ τις ἐκ τῶν ἀρχόντων ἐπίστευσεν εἰς αὐτόν ἢ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 (49절)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ἀλλὰ ὁ ὄχλος οὗτος ὁ μὴ γινώσκων τὸν νόμον ἐπάρατοί εἰσιν.)
- (50절)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Νικόδημος πρὸς αὐτούς)
[그는] 전에 그에게 나왔던 사람으로,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ἐλθὼν πρὸς αὐτόν [τὸ] πρότερον, εἷς ὢν ἐξ αὐτῶν.)
-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잖느냐? (μὴ ὁ νόμος ἡμῶν κρίνει τὸν ἄνθρωπον)
만약 그로부터 먼저 듣지 않고 그가 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ἐὰν μὴ ἀκούσῃ πρῶτον παρ' αὐτοῦ καὶ γινῶ τί ποιεῖ;)
-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ῶν)
너는 갈릴리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μὴ καὶ σὺ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εἶ;)
살펴서 보아라 갈릴리로부터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ἐραύνησον καὶ ἴδε ὅτι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προφήτης οὐκ ἐγείρε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5-46 절을 읽으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종들이 빈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잡아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 다.” 이들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종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겠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 구절인 44 절은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건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군중들 중에 이들 종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잡을 생각을 그만 두게 되었다는 것이 지요.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중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훗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⁴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⁵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⁶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 ⁷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⁸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⁹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¹⁰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¹¹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행 22:3-11).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협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쿠스까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회심하게 됩니다. 만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역사를 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오라고 보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방송국 앵커 출신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러 교회에 나가는 아내가 못마땅하였고 자기 눈엔 그곳이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이 참에 사이비 종교 집단에 관한 특별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벽기

도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종교에 중독된 정신 이상자 정도로 생각하고 아내를 그곳으로부터 구출하려 했던 그분이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사람들의 인생길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나 무엇이 바뀌었나요?

둘째, 종들의 이러한 증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종교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세칙까지 손수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종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는 “지금까지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그동안 진리라고 들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해 온 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니로다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8:41-45).

유대인들, 소위 종교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체계적인 교육과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을 실천하였으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니 거짓말장이니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니 하며 독설을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던 종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너희들도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7:45~52)

45.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원문해석하기

- (45절) 그런데 종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ἦλθον οὖν οἱ ὑπηρέται πρὸς τοὺς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Φαρισαίους.)
그리고 그들이 그들[종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ον αὐτοῖς ἐκεῖνοι.)
왜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διὰ τί οὐκ ἤγάγετε αὐτόν;)
- (46절) 그 종들이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ὑπηρέται.)
지금까지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οὐδέποτε ἐλάλησεν οὕτως ἄνθρωπος.)
- (47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ὖν αὐτοῖς οἱ Φαρισαῖοι.)
너희들도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μὴ καὶ ὑμεῖς πεπλάνησθε;)
- (48절)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그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μὴ τις ἐκ τῶν ἀρχόντων ἐπίστευσεν εἰς αὐτόν ἢ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 (49절)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ἀλλὰ ὁ ὄχλος οὗτος ὁ μὴ γινώσκων τὸν νόμον ἐπάρατοί εἰσιν.)
- (50절)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Νικόδημος πρὸς αὐτούς.)
[그는] 전에 그에게 나왔던 사람으로,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ἐλθὼν πρὸς αὐτόν [τὸ] πρότερον, εἷς ὢν ἐξ αὐτῶν.)
-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들 판단하지 않잖느냐? (μὴ ὁ νόμος ἡμῶν κρίνει τὸν ἄνθρωπον)
만약 그로부터 먼저 듣지 않고 그가 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ἐὰν μὴ ἀκούσῃ πρῶτον παρ' αὐτοῦ καὶ γινῶ τί ποιεῖ;)
-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ῶν.)
너는 갈릴리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μὴ καὶ σὺ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εἶ;)
살펴서 보아라 갈릴리로부터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ἐραύνησον καὶ ἴδε ὅτι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προφήτης οὐκ ἐγείρε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7-4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오라고 보낸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적잖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 누구도 그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첫번째 질문은 “너희들도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신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즉,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설득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8절의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이들을 향한 강한 경고인 동시에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질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48절은 알다시피 전혀 틀린 말입니다. 소위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도 있었는데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49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들은 종들에게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신분이 변변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처지만을 놓고 볼 때 그들은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 창녀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마 11:19).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지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이나 일부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같은 생각이 개신교내에 적지않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는 믿음 말이지요. 이를 소위 ‘번영 신학’이라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르침들이 이 번영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비판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

람이 땡땡거리며 권력과 부를 누리는 일은 매우 혼란 일입니다. 만약 변영 신학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해 주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변영 신학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었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²⁶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²⁷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²⁸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²⁹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6-29).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 무리들은 율법을 모르는 저주 받은 자들”이라고 폄하합니다. 당시에 이 말은 일상 생활 속에서 순수한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두 싸잡아서 폄하하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예수님 당시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종교개혁을 이끈 에스라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문제, 특히 순혈주의를 회복하려 했습니다(에스라 10:2, 11참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중 일부는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아이들도 두었기에 혈통의 순수성이 훼손된 상태인데다 나머지 열 지파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같은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라는 말은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요한복음이 소위 지금 그들이 내뱉은 ‘율법을 모르는 자’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려 하기에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인 것이지요.

사실 요즈음도 율법주의는 도덕주의(moralism)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얽매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덕주의는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랑이 아닌 도덕을 들이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너는 갈릴리로부터 오지 않았느냐?(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7:45~52)

45.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원문해석하기

- (45절) 그런데 종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Ἦλθον οὖν οἱ ὑπηρέται πρὸς τοὺς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Φαρισαίους.)
그리고 그들이 그들[종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ον αὐτοῖς ἐκεῖνοι.)
왜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διὰ τί οὐκ ἤγάγετε αὐτόν;)
- (46절) 그 종들이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ὑπηρέται.)
지금까지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οὐδέποτε ἐλάλησεν οὕτως ἄνθρωπος.)
- (47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ὖν αὐτοῖς οἱ Φαρισαῖοι.)
너희들도 역시 미혹된 것 아니냐? (μὴ καὶ ὑμεῖς πεπλάνησθε;)
- (48절)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그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μὴ τις ἐκ τῶν ἀρχόντων ἐπίστευσεν εἰς αὐτόν ἢ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 (49절)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ἀλλὰ ὁ ὄχλος οὗτος ὁ μὴ γινώσκων τὸν νόμον ἐπάρατοί εἰσιν.)
- (50절)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Νικόδημος πρὸς αὐτούς.)
[그는] 전에 그에게 나왔던 사람으로,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ἐλθὼν πρὸς αὐτόν [τὸ] πρότερον, εἷς ὢν ἐξ αὐτῶν.)
-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들 판단하지 않잖느냐? (μὴ ὁ νόμος ἡμῶν κρίνει τὸν ἄνθρωπον)
만약 그로부터 먼저 듣지 않고 그가 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ἐὰν μὴ ἀκούσῃ πρῶτον παρ' αὐτοῦ καὶ γινῶ τί ποιεῖ;)
-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ῶν.)
너는 갈릴리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μὴ καὶ σὺ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εἶ;)
살펴서 보아라 갈릴리로부터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ἐραύνησον καὶ ἴδε ὅτι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προφήτης οὐκ ἐγείρε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0-51절을 읽으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정죄하자 그들과 함께 있던 니고데모가 말을 막고 나섰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그로부터 먼저 듣지 않고 그가 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율법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언뜻 듣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와 거듭남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관해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마침 이 시점에 니고데모가 끼어들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제동을 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치 그가 예수님을 옹호하려 애썼다는 느낌을 주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기에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절하상의 하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들어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부터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동정을 살펴 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²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 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³(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⁴또 시장에서 돌아 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외에도 여러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 ⁵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 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막 7:1-5).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께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연히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예수님의 일행과 조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일종의 감시 요원으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도 어찌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를 감시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기준을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니고데모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단성을 평가할 때 니고데모와 달리 자신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만약 율법에 명

시된 기준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에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³³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³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간 밖에 나가게 하고 ³⁵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³⁶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³⁷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피어 좃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³⁸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³⁹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행 5:33-39).

52절을 읽으십시오. 니고데모의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말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너는 갈릴리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갈릴리로부터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살펴 보아라.”

이들은 먼저 니고데모의 출신 지역을 언급합니다. 이 말에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인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 훈수를 두는 것이 못마땅한데다 예수도 그와 같은 지역 출신임을 들어 은근히 예수님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직접적으로 니고데모를 향한 말이라기 보다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통성에 흠이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지요.

이들은 니고데모에게 두개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살펴라(조사를 해 봐라(εἰσαγγέλλω))”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라(ἴδε)”입니다. 먼저 조사를 하라는 말은 역사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역사와 예언을 제대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예가 없고, 성경 어디에도 앞으로 그 지방으로부터 선지자가 나올거라는 예언도 없다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보라’는 말은 현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 거지요.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실제로 태어난 곳은 미가서에 예언된 바로 그곳,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단순한 선동꾼 정도로 폄하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들 입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가능성을 더 높여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들의 논쟁이 그 후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들의 입에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모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기록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대적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는 셈이지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율법, 간음한 여인, 그리고 은혜 (1)(수요일)

오늘의 본문(요7:53~8:11)

53.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앞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 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7장 53절)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καὶ ἐπορεύθησαν ἕκαστος εἰς τὸν οἶκον αὐτοῦ,]

요한복음 8장

- (1절) 예수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δὲ ἐπορεύθη εἰς τὸ ὄρος τῶν ἐλαιῶν.)
- (2절) 이른 아침 그가 다시 성전으로 오셨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Ὁρθρου δὲ πάλιν παρεγένετο εἰς τὸ ἱερόν καὶ πᾶς ὁ λαὸς ἤ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그리고 그가 앞으신 후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καὶ καθίσας ἐδίδασκεν αὐτούς.)
-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Ἄγουσιν δὲ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γυναῖκα ἐπὶ μοιχείᾳ κατελημμένην)
그리고 그녀를 중간에 세웠습니다 (καὶ στήσαντες αὐτὴν ἐν μέσῳ)
- (4절)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선생님이여! 이 여인이 간음 행위 중에 잡혔습니다 (διδάσκαλε, αὕτη ἡ γυνὴ κατελιπται ἐπ' αὐτοφώρῳ μοιχευομένη·)

- (5절) 우리의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ἐν δὲ τῷ νόμῳ ἡμῶν Μωϋσῆς ἐνετείλατο τὰς τοιαύτας λιθάξαιν.)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σὺ οὖν τί λέγεις;)
- (6절) 그들이 그를 시험하면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ον πειράζοντες αὐτόν.)
그를 고소할 것을 갖기 위해서 (ἵνα ἔχωσιν κατηγορεῖν αὐτοῦ.)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κάτω κύψας τῷ δακτύλῳ κατέγραφεν εἰς τὴν γῆν.)
- (7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계속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ὡς δὲ ἐπέμεινον ἐρωτῶντες αὐτόν, ἀνέκυμε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당신들 중 죄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ὁ ἀνομάρτητος ὑμῶν πρῶτος ἐπ’ αὐτὴν βαλέτω λίθον.)
- (8절) 그리고 다시 그가 허리를 굽혀 땅위에 쓰셨습니다 (καὶ πάλιν κατακύψας ἔγραφεν εἰς τὴν γῆν.)
- (9절) 그러자들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나갔습니다 (οἱ δὲ ἀκούσαντες ἐξήρχοντο εἷς καθ’ εἷς)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 (ἀρχόμενοι ἀπὸ τῶν πρεσβυτέρων)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여인 홀로 남겨졌습니다 (καὶ κατελείφθη μόνος καὶ ἡ γυνὴ ἐν μέσῳ οὔσα.)
- (10절) 예수님이 똑바로 서신 후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νοκύμου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ῇ·)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γύναι, ποῦ εἰσιν;)
당신을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οὐδεὶς σε κατέκρινεν;)
- (11절)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없나이다 주여! (ἡ δὲ εἶπεν· οὐδεὶς, κύρι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δὲ ὁ Ἰησοῦς·)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οὐδὲ ἐγὼ σε κατακρίνω·)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πορεύου, [καὶ] ἀπὸ τοῦ νῦν μηκέτι ἁμάρταν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갑자기 다른 사건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흔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초막절이라는 절기에도 잘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에피소드는 원래 초창기 요한복음 사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다가 중세 이후 사본들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만 별도의 조각으로 돌아다니다가 중세 이후에 요한복음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성경 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3~8:1을 읽으십시오.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해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간음한 여인의 에피소드가 후대에 와서 삽입된 것이 분명하다면 요한복음 원본에서는 7장 52절 이후에 8장 12절이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볼 때 53절에서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던 무리들이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하속들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해산한 뒤에 혼자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굳이 예수님이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왜 그리로 가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아마도 이 올리브산(한글 성경에는 감람산)에 인접한 마을인 베다니로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들르신 곳으로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와 그 두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막1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막11:11).

따라서 평소 예수님의 습관으로 볼 때 올리브산 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셨다고 보기보다는 올리브산에 있는 베다니로 가신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다가 날이 저물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시고 자주 올리브산 인근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던 것으로 보아 이 본문 구절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D.A. Carson).

2절을 읽으십시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모든 백성들)이 그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잡고 앉으신 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평소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로 번역되는 ‘라오스’(λαός)라는 단어는 요한이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요한은 군중들(무리들)을 표현할 때 주로 ‘호크로스’(ὄχλος)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군중,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라오스’라는 단어는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군중보다는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군중, 즉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이나 소속 없이 그저 한데 모여 있는 군중들을 표현할 때에는 ‘호크로스’를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특정 집단을 나타낼 때에는 ‘라오스’를 사용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2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 오셨고, ‘모든 백성’(πᾶς ὄλαός, 파스 호 라오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온 백성들은 전날 모였던 그 군중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며, 예수님은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은 다른 공관 복음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곳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표

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서기관’이란 말이 단 한 차례만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8장 3절입니다. 앞에서는 줄곧 ‘유대인’ 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등장하다가 유독 이곳에서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율법 선생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온 것을 보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로 보여 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옳음’과 ‘정결함’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의로움’과 ‘거룩함’이라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한마디로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눈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들 모두를 범한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은 율법을 어겨 ‘불의’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스스로 몸을 더럽혀 ‘불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의와 거룩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의롭고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통제해 왔습니다(예, 미드라쉬).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은 이 여인을 죽이겠다는 목적 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율법, 간음한 여인, 그리고 은혜 (2) (목요일)

오늘의 본문(요7:53~8:11)

53.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앞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 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7장 53절)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καὶ ἐπορεύθησαν ἕκαστος εἰς τὸν οἶκον αὐτοῦ,]

요한복음 8장

- (1절) 예수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δὲ ἐπορεύθη εἰς τὸ ὄρος τῶν ἐλαιῶν.)
- (2절) 이른 아침 그가 다시 성전으로 오셨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Ὁρθρου δὲ πάλιν παρεγένετο εἰς τὸ ἱερόν καὶ πῶς ὁ λαὸς ἤ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그리고 그가 앉으신 후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καὶ καθίσας ἐδίδασκεν αὐτούς.)
-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Ἄγουσιν δὲ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γυναῖκα ἐπὶ μοιχείᾳ κατελημμένην)
그리고 그녀를 중간에 세웠습니다 (καὶ στήσαντες αὐτὴν ἐν μέσῳ)
- (4절)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 선생님이여! 이 여인이 간음 행위 중에 잡혔습니다
(διδάσκαλε, αὕτη ἡ γυνὴ κατελήφθη ἐπ' αὐτοφώρῳ μοιχευομένη·)
- (5절) 우리의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ἐν δὲ τῷ νόμῳ ἡμῶν Μωϋσῆς ἐνετείλατο τὰς τοιαύτας λιθάζειν.)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σὺ οὖν τί λέγεις;)
- (6절) 그들이 그를 시험하면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ον πειράζοντες αὐτόν.)
그를 고소할 것을 갖기 위해서 (ἵνα ἔχωσιν κατηγορεῖν αὐτοῦ.)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κάτω κύμας τῷ δακτύλῳ κατέγραφεν εἰς τὴν γῆν.)
- (7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계속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ὡς δὲ ἐπέμεινον ἐρωτῶντες αὐτόν, ἀνέκυμε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당신들 중 죄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ὁ ἀνομάρτητος ὑμῶν πρῶτος ἐπ' αὐτὴν βαλέτω λίθον.)
- (8절) 그리고 다시 그가 허리를 굽혀 땅위에 쓰셨습니다 (καὶ πάλιν κατακύμας ἔγραφεν εἰς τὴν γῆν.)
- (9절) 그러자 그들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나갔습니다 (οἱ δὲ ἀκούσαντες ἐξήρχοντο εἷς καθ' εἷς)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 (ἀρχόμενοι ἄπὸ τῶν πρεσβυτέρων)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여인 홀로 남겨졌습니다 (καὶ κατελείφθη μόνος καὶ ἡ γυνὴ ἐν μέσῳ οὔσα.)
- (10절) 예수님이 똑바로 서신 후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νακύμ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ῇ·)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γύναι, ποῦ εἰσιν;)
당신을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οὐδεὶς σε κατέκρινεν;)
- (11절)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없나이다 주여! (ἡ δὲ εἶπεν· οὐδεὶς, κύρι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δὲ ὁ Ἰησοῦς·)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οὐδὲ ἐγὼ σε κατακρίνω·)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πορεύου, [καὶ] ἄπὸ τοῦ νῦν μηκέτι ἁμάρταν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절을 읽으십시오. 어제에 이어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세계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읽어 보면 그토록 율법에 정통하다는 이들이 실상은 매우 어이없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간음’은 여자 한 사람에게 의해 저질러지는 죄가 아니라는 점이지요. 반드시 남녀 둘 모두에게 율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이들이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구실로 여자의 죄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것이 확실한 데다 다수의 목격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의 화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절차상 저지른 잘못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고, 현장에서 잡혔으며, 율법에 따라 돌로 쳐죽임을 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집행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요8:6참조). 즉,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옳아떨 확실히 증거를 잡으려했던 것이지요. 한편 이런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여인은 간음을 저지른 죄인으로 율법사들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갈라디아서 3장 23-24절을 실제로 우리 눈 앞에서 시연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²³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혔느니라 ²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23-24).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행사하는 율법사들이 그 율법을 근거로하여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관해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생각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일방적인 죄사함의 선언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의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의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죄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의를 쌓아온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죄란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선을 쌓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한 노력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딤후 1:15)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수많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3:6)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쌓아온 것이 더 큰 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운명적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이끌려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 치루셨기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에 다시는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라는 점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

스도가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선을 추구하고 악은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와져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그런 즉 이제는 당신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율법, 간음한 여인, 그리고 은혜 (3) (금요일)

오늘의 본문(요7:53~8:11)

53.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니아오는지라 앞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 고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7장 53절)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καὶ ἐπορεύθησαν ἕκαστος εἰς τὸν οἶκον αὐτοῦ.]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δὲ ἐπορεύθη εἰς τὸ ὄρος τῶν ἐλαιῶν.)

(2절) 이른 아침 그가 다시 성전으로 오셨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Ὅρθρου δὲ πάλιν παρεγένετο εἰς τὸ ἱερόν καὶ πᾶς ὁ λαὸς ἤ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그리고 그가 앉으신 후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καὶ καθίσας ἐδίδασκεν αὐτούς.)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Ἄγουσιν δὲ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γυναῖκα ἐπὶ μοιχείᾳ κατελιγμένην)

그리고 그녀를 중간에 세웠습니다 (καὶ στήσαντες αὐτὴν ἐν μέσῳ)

(4절)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선생님이여! 이 여인이 간음 행위 중에 잡혔습니다

(διδάσκαλε, αὕτη ἡ γυνὴ κατελιγται ἐπ' αὐτοφώρῳ μοιχευομένη·)

- (5절) 우리의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ἐν δὲ τῷ νόμῳ ἡμῶν Μωϋσῆς ἐνετείλατο τὰς τοιαύτας λιθάρίζειν.)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σὺ οὖν τί λέγεις;)
- (6절) 그들이 그를 시험하면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ον πειράζοντες αὐτόν.)
그를 고소할 것을 갖기 위해서 (ἵνα ἔχωσιν κατηγορεῖν αὐτοῦ.)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κάτω κύψας τῷ δακτύλῳ κατέγραφεν εἰς τὴν γῆν.)
- (7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계속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ὡς δὲ ἐπέμεινον ἐρωτῶντες αὐτόν, ἀνέκυμε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당신들 중 죄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ὁ ἀνομάρτητος ὑμῶν πρῶτος ἐπ’ αὐτὴν βαλέτω λίθον.)
- (8절) 그리고 다시 그가 허리를 굽혀 땅위에 쓰셨습니다 (καὶ πάλιν κατακύψας ἔγραφεν εἰς τὴν γῆν.)
- (9절) 그러자 들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나갔습니다 (οἱ δὲ ἀκούσαντες ἐξήρχοντο εἷς καθ’ εἷς)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 (ἀρχόμενοι ἀπὸ τῶν πρεσβυτέρων)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여인 홀로 남겨졌습니다 (καὶ καταλείφθη μόνος καὶ ἡ γυνὴ ἐν μέσῳ οὔσα.)
- (10절) 예수님이 똑바로 서신 후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νοκύψ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ῇ·)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γύναι, ποῦ εἶσιν;)
당신을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οὐδεὶς σε κατέκρινεν;)
- (11절)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없나이다 주여! (ἡ δὲ εἶπεν· οὐδεὶς, κύρι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δὲ ὁ Ἰησοῦς·)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οὐδὲ ἐγὼ σε κατακρίνω·)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πορεύου, [καὶ] ἀπὸ τοῦ νῦν μηκέτι ἁμάρταν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절과 5절을 읽으십시오.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인이 간음 행위 중에 잡혔습니다. 우리의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어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치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할 건지 질문합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선 이 말 중에 “이런 여자들” 즉,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여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음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한 처벌 규정은 레위기 20: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24절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만드시 죽일지니라”(레 20:10).

“²²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한지니라 ²³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²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한지니라”(신 22:22-24).

이 구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은 모두 유부녀가 간음했을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그냥 죽이라고만 했지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 23~24절은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간을 하였을 경우 돌로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끌려나온 이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아마도 약혼자가 있는 여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율법 외에 율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써 놓은 수많은 지침서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미드라쉬나 미쉬나 등에 의하면 모세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앞에서 말한 그런 경우 외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모세 율법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전통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한편, 이들은 율법을 들이대며 율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이번엔 또 무어라고 답할 건지 묻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대적자요 파괴자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간음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는 간음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관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가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에 관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 한 구절을 찾아 보겠습니다.

“²⁷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²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5:27-29).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죄로 보지만 예수님은 행위 이전의 마음 속 생각만으로도 유죄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없기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⁴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⁴⁵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⁴⁶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Mar 7:14-1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²⁰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²¹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²²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²³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 7:20-23)

결국 예수님이 유죄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깊이 감추어져 있는 속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죄의 유무를 가린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할 자는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간음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들에게 간음죄에 관한 당신의 기준을 이미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대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과연 그들 중 누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며 이 여인을 감히 고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가득한 음란한 생각들, 불쑥불쑥 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들킬까봐 종교적인 노력으로 꾀꾀 숨기려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마치 그럴듯한 의인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해서 행위로 죄를 짓는데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스스로 대견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훨씬 전 단계인 감추어진 마음 속 욕망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아 17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⁹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¹⁰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17:9-10).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엄격하다면 그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자유로우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율법, 간음한 여인, 그리고 은혜 (4) (토요일)

오늘의 본문(요7:53~8:11)

53.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앞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 고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7장 53절)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καὶ ἐπορεύθησαν ἕκαστος εἰς τὸν οἶκον αὐτοῦ,]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δὲ ἐπορεύθη εἰς τὸ ὄρος τῶν ἐλαιῶν.)

(2절) 이른아침 그가 다시 성전으로 오셨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Ὅρθρου δὲ πάλιν παρεγένετο εἰς τὸ ἱερόν καὶ πᾶς ὁ λαὸς ἤ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그리고 그가 앞으 신 후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καὶ καθίσας ἐδίδασκεν αὐτούς.)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Ἄγουσιν δὲ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γυναῖκα ἐπὶ μοιχείᾳ κατελιγμένην)

그리고 그녀를 중간에 세웠습니다 (καὶ στήσαντες αὐτὴν ἐν μέσῳ)

(4절)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선생님이여! 이 여인이 간음 행위 중에 잡혔습니다

(διδάσκαλε, αὕτη ἡ γυνὴ κατελιγται ἐπ' αὐτοφώρῳ μοιχευομένη·)

- (5절) 우리의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ἐν δὲ τῷ νόμῳ ἡμῶν Μωϋσῆς ἐνετείλατο τὰς τοιαύτας λιθάριζαίν.)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σὺ οὖν τί λέγεις;)
- (6절) 그들이 그를 시험하면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ον πειράζοντες αὐτόν.)
그를 고소할 것을 갖기 위해서 (ἵνα ἔχωσιν κατηγορεῖν αὐτοῦ.)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κάτω κύψας τῷ δακτύλῳ κατέγραφεν εἰς τὴν γῆν.)
- (7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계속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ὡς δὲ ἐπέμεινον ἐρωτῶντες αὐτόν, ἀνέκυμι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당신들 중 죄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ὁ ἀναμάρτητος ὑμῶν πρῶτος ἐπ’ αὐτὴν βαλέτω λίθον.)
- (8절) 그리고 다시 그가 허리를 굽혀 땅위에 쓰셨습니다 (καὶ πάλιν κατακύψας ἔγραφεν εἰς τὴν γῆν.)
- (9절) 그러자 들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나갔습니다 (οἱ δὲ ἀκούσαντες ἐξήρχοντο εἷς καθ’ εἷς)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 (ἀρχόμενοι ἀπὸ τῶν πρεσβυτέρων)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여인 홀로 남겨졌습니다 (καὶ κατελείφθη μόνος καὶ ἡ γυνὴ ἐν μέσῳ οὔσα.)
- (10절) 예수님이 똑바로 서신 후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νοκύμια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ῇ·)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γύναι, ποῦ εἰσιν;)
당신을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οὐδεὶς σε κατέκρινεν;)
- (11절)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없나이다 주여! (ἡ δὲ εἶπεν· οὐδεὶς, κύρι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δὲ ὁ Ἰησοῦς·)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οὐδὲ ἐγὼ σε κατακρίνω·)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πορεύου, [καὶ] ἀπὸ τοῦ νῦν μηκέτι ἀμάρταν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6절 후반절~8절을 읽으십시오. 6절 후반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때 쓰신 내용을 추정하여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바닥에 쓰신 내용이 바로 그분의 행위 자체이기 때문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는 예수님이 흙 위에 무언가를 기록한 그 행위가 바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도 추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렘17:13).

문제는 예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계속 답을 달라고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집행할 때 행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신명기 17장 6절~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를 죽일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⁶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⁷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신17:5-7).

여기서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는 말은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의미입니다. 증인이란 그 사람이 유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해야만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요구 조건을 갖춘 죄가 없는 자, 특별히 이와 관련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몇몇한 자가 증인으로 나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려고 기세 등등했던 이들은 순식간에 기가 꺾이고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하게 됩니다.

8~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고 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쓰신 무언가가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쥐고 있던 돌을 놓고 자리를 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돌로 쳐서는 안된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다”라는 식의 율법에 반하는 선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가 없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식의 말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답이었을테니까요.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거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여인을 억지로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온 이유는 예수님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들일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그렇게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11절을 읽으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정죄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자 그녀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주여!”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여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기 전에 저질렀던 그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모멸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를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그곳에 단 한 사람만이 그녀 앞에서 있습니다. 그분의 말 한 마디로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의 입을 막고 떠나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없애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녀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 곁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저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나갔는지 아니면 이 사건의 목격자들로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들이 그 시간에 배운 것은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⁹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 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¹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8-10).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